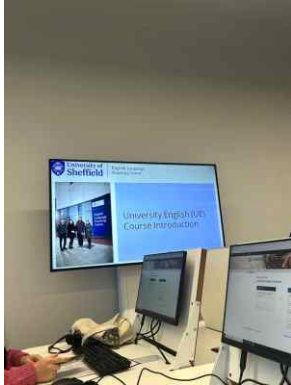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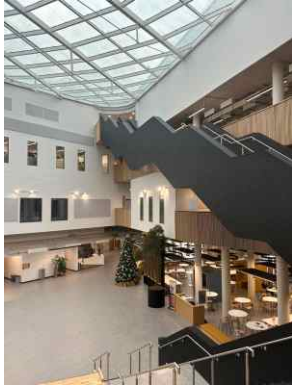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동계방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세필드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4. 01.08.~2024.02.02.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주변 선배들에게 전해듣게 되었다. 학과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틈틈이 들여다보는 것을 추천한다. 제작년과 작년 기준으로 11월쯤 홈페이지에 공고가 떴었던 것 같다. 프로그램 공고가 올라온 후, 자기소개서 토익 점수 등을 바탕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합격 공고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현지 연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은 영국 세필드라는 지역이었지만 이왕 유럽에 가게되었으니 주변 국가를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가는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교통수단에 돈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서 에어차이나, 터키항공을 통해 경유로 유럽에 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때 한국기준 입국, 출국에 들어간 항공비용은 대략 140만원 정도였다. 에어차이나 항공은 경유시간이 23시간 이상인 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경유호텔을 제공했다. 나의 경우 경유시간이 23시간 50분이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경유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긴 경유시간 덕분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구경을 잠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돌아올 때 이용했던 터키 항공사는 경유시간이 긴 승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스탄불 투어를 제공하거나 공항 내 푸드코트의 바우처를 제공해주었다. 만약 나처럼 항공 비용에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에어차이나와 터키 항공사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스탄불 공항의 경우 공항의 크기가 아주 크고 공항 내부가 화려하여 경유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나는 파리와 런던 여행을 계획했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생각하는것보다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는 해외에서 여러장의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자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트레블월렛'이라는 카드였는데 어플을 통해 수수료 없이 환전이 가능해서 좋은 어플이었고, contactless카드여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기 편한 카드였다. 교통카드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카드를 발급받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나에게 가장 메리트가 있었다. -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계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가 1월이었기 때문에 유럽에는 연초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많다. 따라서 평소 예약 없이도 출입이 가능한 관광지들이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 꼭!꼭! 예약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항공편, 숙소, 관광지 예약을 하며 해외연수를 준비하였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 학교에 가면 가장먼저 레벨 테스트를 본다. 컴퓨터실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고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보면 된다. 시험을 보고나서 학생회관에서 학생 등록과 함께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첫날 일정은 마무리된다.

컴퓨터실		컴퓨터실이 있던 건물 내부
		

- 둘째 날에는 배정받은 반에 들어가 오전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ot에 참가하게 된다. 원하는 방과후가 있다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수업은 각 반별로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보였다. 담임 선생님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내가 속해있는 반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첫 시간은 자유로운 주제를 토대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담임 선생님	같은반 친구들	튀르키예 친구	교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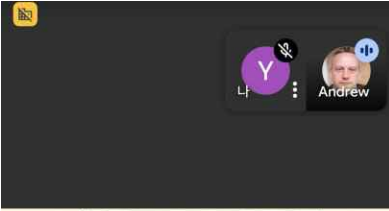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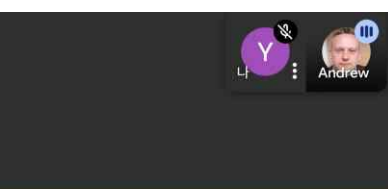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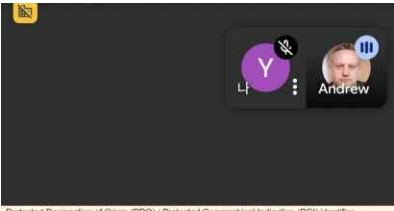
1교시	9시 30분-11시
쉬는시간	11시- 11시 30분
2교시	11시 30분-1시
점심시간	1시-2시
오후수업	2시-3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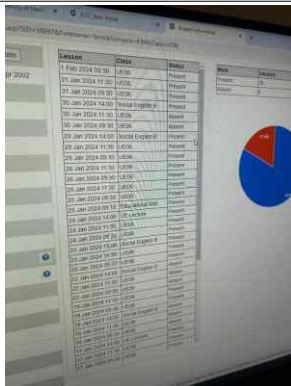
- 위의 표는 수업시간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1시간 30분씩 수업이 이루어지며 쉬는시간은 30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이 시간에 점심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유롭게 쉬는 사람도 있었다. 1교시와 2교시는 담임, 부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정규 수업이었고, 오후수업은 optional class라고 선택과목처럼 각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나는 'social study'라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었고 수업의 내용은 대부분 영국의 음식, 패션, 태도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 월,화,목요일에는 1교시, 2교시, option class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고, 수요일은 오전수업은 똑같이 듣고, 오후에는 기숙사에 돌아가 online class를 듣게되어있었다. online class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였는지 수요일 오전수업에서도 오후에 있을 online class 수업내용을 가볍게 다루어주었다. 금요일에는 오후수업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금요일을 이용하여 주변 지역을 여행하고 오는 듯했다. 금요일 오후시간을 사용해서 금,토,일로 여행을 가거나 출석률을 확인해가며 월요일 결석을 하고 토,일,월을 이용해 여행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대부분 요크, 런던, 에딘버러, 아일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파리 등을 여행하는 것 같았다. 나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여행을 하고와서 모든 주말을 여행하는데 쓰진 않았고 셰필드를 구경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

(출석률은 담임 선생님께 여쭙보면 보여주신다!)

온라인 클래스 내용		
 What's Paul's one criticism of the finished cheesecake? Do you understand the play-on-words - tiers / tears?	 Vegetarians and Vegans in the UK Among consumers in the United Kingdom,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reducing meat consumption. This has turned meat eaters into flexitarians, pescatarians, vegetarians, or even vegans. 41% flexitarian, 5% pescatarian, 7% vegetarian, 3% vegan. More popular among the young The UK market for meat substitutes is already worth over 500 million euros, making it the largest in Europe. Why are people choosing to eat less meat?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identifies 'products that are produced, processed and prepared 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using the recognized know-how of local producers and ingredients from the region concerned'. • Scotch Whisky • Scottish Wild Salmon • Cornish clotted cream • Cheese (Wensleydale) • Cornish pasty cream tea Wallace and Gromit

출석률	셰필드 내 공원1	셰필드 내 공원2 (영화 키싱부스 촬영지)	셰필드 내 공원3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체험학습도 있었다. 연 4~5회 정도로 체험학습을 가는 것 같았고 1월에 예정되어 있던 체험학습은 '맨체스터-축구박물관' 견학이었다. 체험학습이 출결에 포함되기도 하고 무료로 갈 수 있는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꼭 가는 것을 추천한다. 맨체스터에 도착한 후 가볍게 박물관을 박람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맨체스터를 구경할 수 있었다.

맨체스터 축구 박물관	맨체스터 한식당(가게명 : 분식)
	
- 매주 월요일에는 가벼운 테스트를 보았다. 성적에 크게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점수를 확인하며 자신의 영어실력의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방적으로 문법이나 어휘 등을 공부하는 방식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피킹 실력이 늘 수 있는 수업방식이었다. 발음에 있어서도 미국 발음을 영국 발음으로 교정해주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가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 첫주 금요일쯤에 담임 선생님과 튜토리얼을 진행했다. 만약 자신의 레벨과 소속되어있는 반의 수준이 맞지 않다면 이때 선생님께 말하여 반을 바꿀 수 있고, 이곳에서 어떤 것을 배워가고 싶은지, 힘든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나는 셰필드 내에서 현지 영국사람들이 많이 가는 술집이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기도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인 만큼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아도 괜찮다. - 학교에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튀르키예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있었고 함께 수업을 들었다.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수업을 듣다보니 각국의 음식문화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나와 각자 나라의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와 나누어먹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신문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최대한 여러 가지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재밌게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각 국 음식교류	일부 수업 내용
	

3. 참가 성과

- 사람마다 참가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나는 처음 내가 발전시키고 싶어했던 스피킹 실력의 향상여부를 기준으로 세웠다. 한달동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듣고, 심지어 미디어도 영어로 시청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들리고 말하게 되었다. 눈에 필 정도로 영어실력이 엄청나게 발전한건 아니지만 일단 자신감있게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발전 요소라고 생각한다. writing에 있어서도 어떤 문법을 외국인들이 신경쓰는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바로바로 알려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실력도 많이 향상한 것 같다. 영어실력을 떠나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버스 비용(광주~인천공항)	약 5만원
통신 비용(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탄불)	약 20만원
여행자 보험	약 10만원
갈 때 비행기 (에어차이나)	약 60만원
프랑스 숙소(3박 4일)	약 20만원
프랑스 티켓 가격(뮤지엄패스)	약 8만원
프랑스 티켓 가격 (뮤지엄패스 제외)	약 10만원
프랑스 교통비 (나비고,한인택시 예약)	약 10만원
프랑스 식비 (식당 4회)	약 20만원
기차 값(프랑스~런던)	약 20만원
런던 숙소비 (2박3일)	약 20만원

런던 뮤지컬 티켓 가격	약 8만원
런던 식비 (식당 3회)	약 12만원
버스 비용 (런던~세필드)	약 4만원
런던 교통비(교통카드 충전)	약 2만원
세필드 식비(식당, 장보기, 술값 포함)	약 50만원
세필드 쇼핑(기념품 등)	약 13만원
기차 값 (세필드~요크) 왕복	약 4만원
요크 여행비(식비)	약 5만원
기차 값(세필드~에딘버러)왕복	약 8만원
에딘버러 숙소비용(2박 3일)	약 12만원
에딘버러 식비	약 15만원
에딘버러(조니워커 투어)	약 5만원
기차 값(세필드~맨체스터)왕복	약 5만원
맨시티 축구경기	약 5만원
맨체스터 식비(2회)	약 5만원
버스 비용(세필드~맨체스터 공항)	약 2만원
공항 식비 (맨체스터 공항, 이스탄불 공항, 인천공항)	약 10만원
인천공항 짐질방	약 4만원
버스 비용(인천공항~광주)	약 5만원
총액(교육비, 지원금 제외)	약 367만원
교육비용	약 390만원
지원금	약 200만원
총 본인 부담금	약 557만원(367+390-200)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거양득!’이다. 영어공부 하러가서 영어 실력도 늘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사귀고, 영국의 문화도 느껴보고, 특히 탁트인 영국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기분전환까지 잘 하고 온 것 같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지역인 세필드는 비교적 한적한 시골동네 같았는데 넓게 트여있는 공원과 높지 않은 건물들이 주는 경치가 마음을 너무 차분하게 만들어주었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영국의 문화자체도 나랑 너무 잘맞았다. 영국 음식도 맛없기로 유명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갔는데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인지 음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진 못했다. 학업에 있어서도 스스로 문법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문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문법들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처음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초등학생때 다녔던 영어학원의 느낌이 나서 돈이 아깝기도 하고 이래서 배우는게 있을까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었는데 오히려 친근한 주제로 수업하면서 편하게 말이 트이게 해주고 너무 쉬워서 다시 볼 생각조차 못했던 문법들을 다시 공부하며 기초부터 다시 닦아갈 수 있었다.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고 너무 좋았다. 특히 나의 경우 나와 너무 잘 맞는 담임선생님이 선정되어서 항상 웃으면서 등교하고 하교하였다. 말하는게 서툴러서 천천히 말하면 답답할 법도 한데 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틀린 부분은 천천히 교정해주셨다. 그런 학습법이 나와는 너무 잘 맞았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 받아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수업 중간중간 다른 나라 친구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것도 너무 좋았다. 식당에 가도 직원들이 친절

하게 설명해주었고 한국 사람들은 유럽 식당의 느긋한 분위기를 답답해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니 여유롭게 식사하는것에서 오는 만족감도 상당히 컸다. 하루 한끼 식사에서도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여유롭게 식사하며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학교 내의 친구들도 좋았지만 학교 밖에서 영국 친구들을 사귀고싶어 방과후활동은 신청하지 않고 바깥을 돌아다녔는데 사실 영국 친구를 사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영어실력의 향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바쁜 일상에서 떠나 예쁜 자연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좋은 재정비의 시간이었다.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한달이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 개강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학업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전공 공부밖에 없는 것 같다. 전공과목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각종 자격증을 따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취업을 위해서는 토익점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토익 성적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남은 방학때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야할 것 같다.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오고나서 확실히 느낀점은 이제는 영국발음도 제법 들린다는 것이다. 뿌듯했다. 취업시즌을 잘 넘기고 나서 자기계발을 위한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영어는 언어인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공부할 생각이다.

2) 진로계획

- 원래는 막연히 임상에 취업해서 국내에서만 간호사 생활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해외간호사는 그저 꿈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서 해외간호사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정도가 된다면 해외간호사도 도전해보고싶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꼭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여러 곳 구경하고 잘 놀러다녔으면 좋겠다. 영어공부는 학교에서 딱 끝내버리고 자유시간에는 다른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가서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숙소 시설이 너무 좋아서 숙소에서 쉬고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겠지만 이틀에 한번쯤은 숙소 밖으로 나가서 주변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 셰필드에는 생각보다 예쁜 자연경관이 많다. 잘 찾아보면 영화 키싱부스의 촬영지도 있고 박물관도 관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국 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한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 영국에 있으면서 밥을 사먹기만 하면 아마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것이다. 플랫에 주방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친구들과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어먹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한식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먹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내에 나가면 중국마트가 여러개 있는데 중국마트에 라면이나 과자 등 한국음식들이 꽤나 있다. 그런데 중국마트에 햇반이 없다. 생각했던것보다 햇반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다. 만약 1인용 밥솥을 챙겨간다면 근처 아무 마트에서나 쌀을 구입할 수 있으니 챙겨가는 것도 추천한다. 나는 밥솥을 챙겨가지 않아서 햇반을 먹다가 나중에는 냄비밥을 지어먹었다. 냄비밥도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 그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반을 구입하고싶다면 학생회관으로 가면 된다. 학생회관에서 햇반을 판매하고 있고 라면도 종류별로 팔고있기 때문에 학생회관에서 햇반을 대량 구매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한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마늘인데 학생들 사이에 '알디'에만 다진마늘이 판다고 소문나서 그런지 알디는 항상 다진마늘이 품절이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테스코에도 튜브로 된 다진마늘을 판다. 튜브로 된 다진마늘을 찾지 못했다면 냉동식품코너에서 냉동 간마늘을 구입하면 된다. 한국에서 집을 챙길 때 어떤 음식을 챙겨야할까 고민이라면 햇반, 볶음김치, 고추참치, 즉석 카레 등을 추천한다. 라면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햇반이나 김치는 구하기 힘들뿐더러 가격도 만만치 않다. 햇반이랑 볶음김치는 꼭 가능한 많이 챙겨가기!. 칼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생각보다 찾기 어렵다. 캐리어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다이소에서라도 저렴한 칼을 하나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 프랑스 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꼭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여행했던 경우다. 박물관 위주로 여행한다면 '뮤지엄패스' 티켓 구입을 추천한다. 뮤지엄패스 티켓을 구매했을 때 온라인으로 바코드가 전송되는데 꼭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바우처에 가서 종이티켓으로 발급받아야한다. 종이티켓이 없으면 뮤지엄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 꼭꼭 종이티켓으로 교환하기! 또한 뮤지엄패스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가고자하는 곳의 웹사이트에서 시간예약을 꼭 해야 시간에 맞춰 들어갈 수 있다. 바보비용을 쓰지 않도록 꼭 조사해보길 추천한다.
- 소매치기로 유명한 파리였지만 생각보다 소매치기의 위험은 적었다. 파리올림픽 때문에 치안이 강화되어있다고 한다. 그래도 건넌 주머니에는 휴대폰을 넣지 않아야한다. 흑시모를 소매치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국에서 누가 피시엔칩스가 맛있다고 했던가? 그 사람들은 아마 맛이 없는 식당에 가서 먹은 것 같다.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싶다면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유명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에딘버러 여행을 계획하고있다면 'fish market'과 'betties'를 추천한다. fish market의 피시엔칩스는 정말 맛있었다!
- 셰필드 내의 알려지지 않은 맛집을 찾은 것 같다. 그곳은 'hrrlem burger'였다. 구글맵에도 평점 5점이지만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셰필드에서 유명한 웬디스 햄버거보다도 맛있었던 할렘버거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맛도 좋으니 꼭 가볼것!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던 친구들은 일주일에 4번을 할렘 햄버거를 먹었을정도로 맛있는 곳이었다.
- 영국 숙소는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공기가 쌀쌀했다. 특히 첫날에는 라디에이터가 꺼져있었어서 벌벌 떨면서 잤다. 반팔보다는 긴팔 위주로 챙길 것을 추천한다. 둘째 날부터는 따뜻해져서 좀 괜찮았다. 따뜻해졌다고 라디에이터를 꺼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꼭 계속 켜둬야한다.
-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수도물이 석회수이다.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뽀뽀해질 수 있고 물이 몸에 맞지않아 고생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 필터가 달려있는 샤워기를 하나쯤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 기숙사 내부에 잘 찾아보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것들이 많다. 내가 사용했던 기숙사의 1층에는 포켓볼대가 있었고, 작은 영화관도 있어서 넷플릭스를 연결하여 영화관람도 할 수 있었다.

각자 기숙사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꼭 둘러보고 이용하면 좋겠다.

할렘 하우스(햄버거)	테스코 다진마늘	학생회관 라면, 햇반	
			
학생회관 기념품	기숙사 1층 영화관	수업 교재	세필드 시내
			
기숙사 내부1	기숙사 내부2	기숙사 화장실(개인)	기숙사 주방(공용)
			

- 현지에서 영화관람 하는것도 추천한다. 물론 영화를 영어로 감상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 영화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다. 정말 영어로 보는 것이 어

려울 것 같다면 애니메이션이나 원래 알고있던 내용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은 ‘웡카’를 관람하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고 좋았다.

- 런던을 여행한다면 한번쯤 뮤지컬을 관람해볼 것을 추천한다. 고퀄리티의 뮤지컬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레미제라블, 겨울왕국,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라이온킹 등 재미있는 뮤지컬이 많으니 꼭 관람했으면 좋겠다. 뮤지컬 예약은 현지시간으로 매주 월요일 00시에 티켓이 풀리니 미리 알아보고 싸게 예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 소소한 조언이지만 타워브릿지는 바로 앞에서 보는것보다 런던브릿지 위에서 보는 것이 훨씬 예뻐다. 예쁜 사진을 찍고싶다면 런던브릿지에서 타워브릿지를 배경으로 사진찍기!
- 훗날 단기 어학연수로 셰필드에 가게 된다면 다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알찬 한달을 보내다 오면 좋겠다. 어려운 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잘풀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거운 한달 보내고 오기를 바란다!

런던 영화관(웡카)	런던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런던브릿지에서 보는 타워브릿지
		